

“영광 뚫리면 전남 뚫린다” 밤낮없는 방역

르포-구제역 청정 전남 지키기 사투 현장 가보니

“전북과 맞닿아 있는 영광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남 침투를 막는 최전선입니다. 영광이 뚫리면 전남이 뚫린다는 생각으로 설 연휴도 반납하고 밤낮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기온이 뚝 떨어진 7일 오전 9시께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에 모인 영광군 공무원들과 축협 직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들은 구제역 공동방제단으로, 축산농가 주변에 방제약품을 살포하고 마을 진출입로에 소독용 생석회를 뿌리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날은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서 소독약품이 의도한 방향과는 다른 곳에 뿌려지는 바람에 방제단원들이 이를 먹고 있었다.

한 방제단원은 “바람이 센 날에는 방역 작업도 두배나 힘들다”면서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더욱 꼼꼼히 방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공무원들과 축협 직원,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구제역을 막기 위해 설 연휴

앞으로 일주일만 차단 성패

공무원·축협 직원들 긴장 속

설 연휴도 반납한 채 총력전

축산농장 등 싹틈없이 소독

합평가축시장 등서도 구슬땀

도 반납한 채 일주일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을 방역의 고비로 보고, 남은 일주일만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처음 발병한 구제역은 3일 만인 지난달 31일 충북 충주시로 남하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육지)에서 유일하게 단 한번도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전남도는 일단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에는 구제역 방역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철저히 봉쇄한 덕분에 구제역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 상태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구제역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고 지난 3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일주일만 구제역 차단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날(7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국내 모든 축산농장과 축산관련시설을 일제히 소독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이명훈(43) 영광군 유통축산과 팀장은 “설 연휴도 반납하고 5개조로 18명의 인력을 배치해 근무하고 있다”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하지만 구제역을 막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말했다.

영광에서 구제역 발병 우려가 있는 한우·젓소·돼지·염소·사슴 등을 키우는 농가는 총 1059가구(21만6699마리)로, 방제단은 날이 저물 때까지 방역에 힘썼으며, 문자 발송과 마을 방송 등으로 구제역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방문한 합평군 학교면 월산리 ‘합평가축시장’ 인근에서도 방제단들이 진땀을 빼고 있었다. 전국에서 한우 농가가 4번째로 많은 합평은 면적당 가축 사육 밀도가 높아 구제역이 퍼지면 견딜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

역이다.

방제단은 축산농가가 몰려 있는 가축시장 인근을 방역 거점소독 장소로 지정해 터널형 소독기를 운영하는 등 방역을 펼치고 있었다.

이계웅(57) 합평군 축산과 팀장은 “그 동안 하루 평균 차량 60대씩을 소독했는데, 설 연휴에는 10배가 넘는 750대 정도를 소독했다”며 “합평에 구제역이 퍼지면 합평은 물론 전남 축산농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2개조(각 3명)가 24시간 맞고대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팀원은 “매년 설 명절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한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 이제 집에서도 그러려니 한다”면서 “다만 축산 관련 직종은 일이 많고 힘들어서 다들 기피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구제역 우려 농가는 소 1965농가(55만7816마리), 돼지 556농가(11만7626마리), 염소 1845농가(9017마리), 사슴 144 농가(3000마리) 등 모두 4510농가(168만7459마리)다.

/영광·합평·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치평동 5·18교육관 옆 시유지 5월단체 간부 소유 버스들 무단주차

시민 민원에도 조치 없어 논란
광주시 파주시식 행정 지적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5·18교육관 옆 시유지에 5월 단체 간부 소유의 관광버스들이 무단 주차돼 논란이다.

부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광주시는 시민들의 민원접수에도 두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파주시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방문한 5·18교육관 주차장과 이어진 1200㎡ 규모 시유지 공터에는 45인승 관광버스 16대가 주차돼 있었다. 이중 버스 5대에는 번호판조차 부착되지 않았다.

이 곳은 광주시가 소유하고 5·18선양과가 관리하는 공원부지로 평소에는 5·18교육관이나 5·18자유공원을 방문하는 단체 방문객의 버스를 주차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버스들은 목포대 통학버스들로, 차량 소유주 A씨는 한 5월 단체의 회장이다. A씨는 목포대가 겨울방학을 맞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버스운행이 중단되자, 시유지 내에 무단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다. 영업용 버스의 경우 지정차고지 이탈에 따른 불법 주차는 과태료만 20만원에 이르지만, 광주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은 “5·18교육관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광주의 상징적 공간인데 교육관과 관련이 없는 관광버스들이 자리를 차지해 불쌍하다”며 “버스 소유주가 5·18단체 핵심관계자라는 말을 듣고 더욱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버스 차고지가 목포대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방학기간 주차장이 공사에 들어가며 차량을 보관할 데가 없어 임시로 5·18교육관 옆 부지에 주차해 놨다”며 “요즘은 5·18교육관 방문객들이 뜸한 시기이기 때문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일시 영업정지를 해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5·18선양과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버스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서구청과 연계해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혜택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7일 오전 영광군 묘량면 축산농가 밀집지역에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맞아 방역당국이 차량을 이용해 소독을 하고 있다.

/영광·최혜배 기자choi@kwangju.co.kr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 동남아인 2명 구속 기소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A(18)씨와 태국 국적 B(여·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대마초 186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달 10일 국제우편으로 태국에서 합성마약인 야바(YABA) 400정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으로

동남아 마약 밀매조직이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

이들이 밀수한 대마초는 370여명이, 야바는 400~800명이 복용 가능한 양이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해 10월, 2014년 국내에 들어와 한국어 연수생·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B씨는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약물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검찰은 마약의 국내 배포 경로와 유통책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3일간 노숙 배고파서...편의점 새벽 강도 5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7일 편의점에서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공갈미수)로 송모(5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임모(여·26)씨를 돌맹이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편의점 인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설 연휴 3일동안 노숙한 송씨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임씨는 긴급신고시스템인 ‘한달음서비스’의 단말기 수화기를 내려놓아 관한 지구대에 긴급상황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가속페달 잘못 밟아서...식당 차량돌진 사고 70대 조사

광주북부경찰은 7일 식당으로 차량돌진 사고를 낸 A(7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맞은편 식당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손님 B씨(26) 등 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후진으로 주차를 하던 중 뒷 범퍼가 벽과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순간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듯 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흥기에 가슴 찢린 50대, 안주머니 지갑 덕분에 구사일생



○...술자리에서 흥계를 하다 상대방으로부터 흥기로 가슴을 찢린 50대 남성이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덕분에 구사일생.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자정께 광주시 북구 한 주택에서 지인 등 5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A(50)씨가 B(41)씨에 의해 흥기로 가슴

을 두차례나 찢렸으며, 이에 A씨는 B씨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흥기를 휘두른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A씨도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흥기의 길이가 짧고 앞서서 A씨 옷웃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 막혀 불상사를 막았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